

남궁선생전(南宮先生傳)

허균(許筠)

선생의 이름은 두(斗)이다. 대대로 임피(臨陂)¹⁾에서 살아 집안도 오래되었고, 재산도 넉넉하여 고을에서 내로라하는 집안이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2대에는 과거에 뽑혀 관리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남궁두만은 박사(博士)²⁾의 제자로서 과거 공부를 하여 집안을 일으켰다. 30세에 처음으로 을묘년(乙卯年)³⁾에 사마시(司馬試)⁴⁾에 합격하여 과거 시험장에 이름이 올리게 하였다.

일찍이 대신불약부(大信不約賦)라는 글을 지어 성균관(成均館) 시험에 수석으로 뽑혔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 글을 외워 암송하기도 했다.

先生名斗。世居臨陂 家故饒 財雄於鄉。
自其祖父二世皆不肯推擇爲吏 斗獨以博士弟子業起家。
年三十 始中乙卯司馬 有聲場屋間。
嘗以大信不約賦 魁泮解 人皆傳誦之。

남궁두는 거만하고 고집이 세며,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성격이었다. 감히 재주만 믿고는 고을에서 호탕하게 제멋대로 지냈고, 거들먹거리면서 고을 수령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지도 않았다. 그러자 읍내의 상하 간이 모두 남궁두를 흘겨보며 앙심을 품었으나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선생은 처음으로 서울로 이사하여 적극적으로 출세하고자 하려 하고, 첩(妾) 한 사람만 시골집에 남겨 두었다. 다만 해마다 가을이면 곧장 내려가 가을 수확을 처리하였다.

斗伉偻自矜 剛忍敢爲。
恃才豪橫於閭里 倨不爲禮於長吏。縣上下俱側目於斗 而積不敢發。
始先生移家輦下 爲進取計 而留一妾於鄉墅。每年秋 輒歸 經紀其務。

첩(妾)은 무인(武人)의 딸이었는데, 매우 예쁘고 영특하였고, 글과 계산법을 가르쳐 주면 뛰어나게 빨리 알아차렸다.

그래서 남궁두는 첩을 가장 사랑했으나, 주인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여러 달 동안 홀로 지냈으므로, 몰래 남궁두의 성(姓)이 다른 당질(堂姪)⁵⁾과 정을 통하고 있

1) 전북 옥구의 옛 지명.
2) 학문이나 전문 기술에 종사하던 사람에게 주던 벼슬.
3) 명종 10년(1555).
4)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5) 사촌 형제의 아들.

었다.

妾卽兵家女而艷慧甚 教以書計 該捷絕倫。

斗絕嬖之 其在洛也 則曠居累月。故潛與斗之堂姪異姓者私。

무오년(戊午年)¹⁾ 가을, 남궁두는 급한 일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일사(一舍)²⁾를 남기지 못하고 날이 저물었다. 하인들만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는, 혼자서 말 한 필을 타고 시골집으로 달려와 보니, 이미 등불이 밝혀 있는 밤이었다.

노복들도 모두 잠자리에 들었으나 중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보이는 첩은 곱게 화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섬돌에 서 있었다.

당질이 동쪽의 낮은 담을 넘느라 발이 땅에 반 자쯤 닿지 않고 있었는데, 첩이 급히 달려가 안아서 맞아들이고 있었다.

戊午秋 斗以事急還鄉 未及一舍所日曛。

留僮從 獨一騎馳至墅 則已燃燈矣。

僕隸咸休 中門洞啓 見妾艷粧麗服佇於階。

而堂姪者踰東短垣 足未及地者半咫 妾遽前撲抱。

남궁두는 분노를 참으며 마지막까지 천천히 기다리고 있었다. 말을 바깥문의 기둥에 매어 두고 몸을 숨겨 가린 채, 틈 사이로 그들을 엿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시덕거리며 온갖 음란한 말을 주고받다가, 옷을 벗고 함께 잠자리에 들려 하였다.

남궁두는 당장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갔다가 벽을 더듬었다. 그곳에는 화살통에 화살 두 개와 활 하나가 걸려 있었다.

마침내 화살을 당겨서 쏘아, 먼저 계집의 가슴을 꿰뚫어 즉시 넘어뜨렸다. 그러자 그 사내는 놀라서 일어나 북쪽 창문으로 뛰어넘으려 하자, 또 쏘아 늑골을 맞추어 죽게 하였다.

斗忍怒而姑徐俟其終。繫馬於外門柱 潛身蔽於隙中以窺之。

二人者諧謔極褻 將解衣竝枕。

斗方窮其實 就暗裏摸壁 則掛簾有二矢一弧。

遂關而注射 先貫女胸腹立潰。其男驚起 跳北窗出 又射之中脅斃。

남궁두는 관아에 알리려 하였으나, 가문을 더럽히게 되고, 또 고을 수령의 마음을 얻기에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곧바로 두 시체를 끌고 가서, 논외 도랑 속에 파묻어 버렸다. 그리고는 곧바로 말을 몰아 서울로 돌아갔다.

1) 명종 13년(1558).

2) 부대가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약 30리.

다음날 날이 밝은 뒤에, 집안의 종들은 첩이 보이지 않음을 알아차렸다. 그녀와 당질이 함께 도망친 것으로 여기고 당질의 집에 가서 물어보았으나, 역시 간 곳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斗欲告官 以點汚門戶 且難保長吏心。

卽牽二屍 埋於稻田瀆內。卽疾驅回洛。

遲明 家僕覺之。意其與堂姪逃 問姪家則亦莫知所之。

농장에 어떤 종놈이 있었는데, 남궁두의 곡식 1백여 석을 훔친 적이 있어, 남궁두가 오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항상 염려하고 있었다. 그자는 남궁두가 두 사람을 죽이지 않을까 의심하고는 그 자취를 찾아보았다. 논 도랑의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걸 보고서 삼질하여 파보니, 두 시체가 엎어지고 뒤집혀 있었다.

곧바로 첩의 집에 알리자, 늙은 병졸¹⁾이 수령에게 고발하고, 사내 집안에서도 오랜 원한이 있었다는 증거를 세웠다.

수령이나 여러 아전들은 본래부터 남궁두를 불쾌하게 여겼기에, 모두 기뻐하여 잘 걸려들었다고 하면서, 사사로운 미움으로 당질을 모살했다고 죄안(罪案)을 꾸몄다.

有莊奴竊斗穀百許石 常恐斗來則必死。

疑斗之殺二人 尋其跡。

田瀆有膏沸於水上 鍤發之 二屍俯仰焉。

卽奔告妾家 老革告于令 引男家證有宿怨。

令與諸吏固嘗不快於斗 俱喜而欲甘心以私嫌 謀殺堂姪爲案。

남궁두는 서울에서 잡혀 형틀에 묶이고, 오독(五毒)²⁾을 첨가한 죄인의 수레에 태워져 이산(尼山)³⁾에 이르렀다. 남궁두의 아내가 어린 딸을 업고 뒤늦게 도착해서는, 간수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이고, 밤에 형틀을 풀어 빠져나가게 하였다.

날이 밝아서야 간수가 그가 없음을 알아냈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이에 그의 아내를 관아에 끌고 가 딸과 함께 옥중에서 굶겨 죽였다. 임피의 전답과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 두 원수의 집안에 나누어 주었다.

械斗於都下 五毒備漆 攬至尼山。

斗之妻負幼女追至 醉守者 夜脫械逸去。

天亮 守者覺之 跡不獲。

以其妻致縣 竝女庾死獄中。

1) 첩의 아버지.

2)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

3) 충청도의 지명.

陂池園田臧獲 狼籍分析於二仇家。

남궁두는 곧바로 금대산(金臺山)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법명(法名)을 총지(攄持)라 하고 계율을 무척 엄하게 지키며 1년을 지냈다.

원수의 집안에서 있는 곳을 알아내어 병졸들을 거느리고 붙잡으러 오고 있었다. 그날 새벽에 꿈을 꾸는데, 산신이 일러주기를,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올 것이니, 급히 달아나야겠다.”

하였다. 잠에서 깨어나자 급히 산에서 내려왔고, 잡으러 오던 사람들은 도착했지만, 붙잡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斗卽入金臺山 落髮爲僧。法名攄持 戒行甚嚴 過一臘。

仇家跡知之 率吏士掩之。

其曉夢有山神告曰。冤債至 可亟去。

既覺 急下山 捕者至 不獲而返。

남궁두는 두류산(頭流山)¹⁾으로 향하다가 쌍계사(雙溪寺)에서 한 달 정도 기거하였지만, 이름 있는 절이라 중들이나 속인들이 모여드는 것에 싫증을 느끼게 되었다.

곧 그곳을 버리고 태백산(太白山)으로 향하다가 의령(宜寧)에 있는 야암(野庵)에 이르러 휴식을 취했다.

斗向頭流山 居雙溪月餘 厭名利縈俗所湊集棄。

向太白山至宜寧野庵憩焉。

뒤따라 스님 한 사람이 도착하였는데, 예쁘게 생겼고 나이도 어렸다. 샷갓을 벗고 당(堂)으로 오르더니 자세히 얼굴을 살펴보며,

“그대는 본래 선비였군요. 왜 삭발하였습니까?”

묻고는, 조금 뒤에 다시,

“참을성이 있는 분이군요.”

하더니, 잠시 뒤에 다시,

“유도(儒道)를 업으로 하시면 큰 벼슬 하실 텐데.”

하였다. 얼마쯤 지나 웃으면서,

“두 사람의 목숨을 상하게 하고 죄를 지어 도망 온 사람이군요.”

하는데, 네 마디가 모두 딱 들어맞는 말이었다.

續有一僧至 丰秀年少。解襍距堂廉睨曰。

君。士族也。何脫削乎。

1) 지리산(智異山).

俄曰。性忍者。
 少頃曰。業徧而得一名也。
 良久笑曰。傷二人命負罪逃者。
 發四言皆合。

남궁두는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밤이 되어 그의 침소로 찾아갔다. 머리를 두드리며, 모든 말이 사실이라고 하고, 이어서 무척 간곡하게 가르침을 청했다.

이에 젊은 스님이,

“나는 겨우 관상(觀相)¹⁾만을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스승께서는 모든 예(藝)²⁾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을 관상하고는 어떤 예를 전해 주십니다. 더러는 부주(符呪)³⁾로, 더러는 상위(象緯)⁴⁾로, 더러는 감여(堪輿)⁵⁾로, 더러는 추점(推占)⁶⁾을 그 그릇에 따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관상 보는 법을 전수 받았으나 아직 지극한 경지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감히 남의 스승이 되겠습니까.” 하였다.

斗大駭錯愕失措 夜就其寢。
 扣頭服賓 且請教甚懇。
 少年僧曰。我只解相人耳。
 吾師多藝。相某人當傳某藝。或符呪 或象緯 或堪輿 或推占 隨其器誘掖之。
 我受相法 尚未造極 安敢爲人師。

남궁두가 지금 스승이 어디에 계시느냐고 묻자, 스님은,

“무주(茂朱)의 치상산(雉裳山)에 계시오. 그대가 그곳으로 가면 만나 뵈 수 있을 겁니다.”

하자, 남궁두는 절하고 나왔다. 다음날 날이 밝아 안부를 살피러 가 보았더니 이미 떠나 버린 후였다.

곧바로 방향을 돌려 막대를 짚고, 치상산에 도착하여 온 산을 두루 살폈다. 절이 거의 수십 곳이었으나 모든 절에 특별한 중이라고는 없었다.

斗問師今焉在 僧曰。
 住茂朱雉裳山。你往則可見。

1)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성질이나 운명 따위를 판단함.
 2) 방술(方術). 신선의 술법.
 3) 부적(符籙)을 만드는 일. 부적을 잡귀를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붉은색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이는 종이.
 4) 하늘의 여러 현상을 보고 길흉(吉凶)을 예언함.
 5) 풍수지리(風水地理).
 6) 점술(占術).

斗拜而退。迨曙往候 則已去矣。

卽回錫到雉裳山。環山伽藍殆數十區 俱無異僧。

한 해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머물며, 돌이 구르는 층계와 산의 정상과 새도 날아간 적이 없는 곳까지를 찾아다녔다. 서버 번 돌며 뒤졌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젊은 스님에게 속았다고 여기고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런데 우연히 한 골짜기에 이르자 숲속으로 흐르는 시내가 있었는데, 물 위에 큰 복숭아씨가 흐르고 있었다.

留一歲苦心 參訪層磴絕頂 鳥迹所不到處。

搜覓三四周而不能得。以爲少年僧相誑。悵然欲返。

忽到一洞 有川注於林薄間 流出大桃核。

남궁두는 마음속으로 기뻐서 중얼거리기를,

“이곳이 선사(仙師)가 계시는 곳이 아닐는지.”

하고는, 걸음을 재촉하여 물줄기를 따라 몇 리 정도를 걸어 들어가 우뚝 솟은 한 봉우리를 바라보았더니, 소나무와 삼나무가 해를 가리고 있는 곳에, 허름한 세 칸 집이 있었다. 벼랑에 기대어 지은 집인데, 돌로 쌓은 층계로 대(臺)를 만들었고 맑고 깨끗한 곳에 위치를 정하였다.

斗心欣然曰。是中莫是仙師所否。

促步沿流可數里許 仰觀一峯陡起 松杉翳日 有素屋三楹倚崖而構。

砌石爲臺 位置清塏。

옷깃을 거머쥐고 길을 따라, 그 위로 오르니 동자(童子)가 맞이해 주며 묻기를, “어디서 오시오?”

하기에, 남궁두는 읊(揖)¹⁾하면서 말하기를,

“총지(摠持)가 선사를 찾아뵈러 왔습니다.”

했더니, 동자가 동편의 왼쪽 합문(閤門)을 열어주었다. 노승이 계셨는데, 모습은 마른 나무 같았다. 해진 가사(袈裟)를 입고 나오면서 이르기를,

“화상(和尚)²⁾의 풍채가 우람하여 보통 사람 같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였다.

攬衣經登其上 則有一小童迎曰。問何方來。

1)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리는 인사하는 예법.

2) ‘승려’의 경칭.

斗揖曰。摠持來參仙師。

童關東偏左閣子 有老僧形如槁木。披破衲出曰。

和尚風神聳溢 非恒人也。曷爲至。

남궁두는 꿇어앉으며,

“어리석고 우둔한 저는 아무런 기예(技藝)가 없습니다. 노사(老師)께서 많은 방술(方術)을 알고 계심을 듣고, 세상에서 한 가지의 방술이라도 행하고 싶어서 천 리 먼 길에 스승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1년을 지내고야 겨우 찾았으니, 제자가 되어 배우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하였다.

斗跪曰。愚魯無他技。聞老師多藝 欲行一方技以行世 千里求師而來。

週一歲方得樞衣 幸進而教之。

장로(長老)¹⁾가,

“산야(山野)에서 죽음이 임박해 있는 사람일 뿐인데 무슨 방술이 있겠소.”

하자, 남궁두는 계속 절하며 간절히 애걸했으나, 굳게 거절하며 문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남궁두는 처마 아래서 엎드린 채, 새벽이 되도록 슬프게 하소연하면서 아침이 되어도 그만두지 않았다. 장로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책상다리로 앉아 선정(禪定)²⁾에 들어가 돌아보지도 않은 채 3일을 보냈다.

남궁두가 갈수록 더 정성을 올리자, 장로는 그때에야 그의 정성을 알아보고는 문을 열어주며 방으로 들어오도록 해주었다.

長老曰。山野濱死之夫耳 安有藝耶。

斗百拜懇乞 固拒之 閣戶不出。

斗伏於廡下 達曉哀訴 至朝不休。

長老視若無人 趺坐入定 不顧者三日。

斗僉不懈 長老方鑑其誠 關戶令入室。

방이 한 길밖에 되지 않았고 목침(木枕) 하나가 놓여 있었다. 또 북쪽 벽을 뚫어 여섯 굵이의 감실(龕室)³⁾을 만들었는데, 자물쇠로 닫아 놓고 열쇠 하나를 감실 기둥에 걸어 놓았다. 남쪽 창문 위의 선반에는 책 대여섯 권이 있을 뿐이었다.

장로가 오래도록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웃으면서,

“그대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네. 투박한 성품이니 다른 방술은 가르쳐 줄 수 없

1) 나이가 많고 학식이 풍부하며 덕이 높은 승려.

2) 속세의 정(情)을 끊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삼매경(三昧境)에 이름.

3) 사당 안에 신주를 모셔 두는 장(櫨).

고, 오직 죽지 않는 방술은 가르쳐 줄 수 있네.”
 했다. 남궁두가 일어나 절하며,
 “그거면 족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였다.

室大方丈 只安一木枕。鑑北龕爲六谷 鑰閉而掛一匕於龕柱。
 南窗上懸板 兒有五六卷書而已。
 長老熟視之 笑曰。
 君忍人也。推朴不可訓他技 唯可以不死教之。
 斗起拜曰。是足矣。奚用他爲。

장로가,
 “대저 모든 방술이란 먼저 정신을 모은 후에 이룰 수 있는 것이라. 더구나 혼(魂)과 정신을 단련하여 신선으로 탈바꿈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야 더 말할 게 있겠나. 정신을 모으는 일은 잠을 자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그대는 먼저 잠을 자지 않도록 하게나.”
 하였다.

남궁두가 그곳에 도착한 지 나흘이 되어도, 장로는 음식을 먹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하루에 한 차례 검은 콩가루 한 홑만 먹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전혀 배고프고 피로한 기색이 없어, 마음에 별다르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는 온 정성을 다하여 큰 소원을 이뤄 달라고 빌었다.

長老曰。凡諸方先聚精神 而後乃可成。
 矧煉魄飛神 欲求仙蛻者乎。聚精神自不睡始 你先不睡。
 斗到此四日 而長老不食飲 猶童日一食黑豆米一合。
 了無飢疲色 心已異之。及承此誨 至誠發大願。

첫날 밤에는 앉아서 사경(四更)¹⁾을 지나자 눈이 저절로 감겼으나, 참아내고 새벽까지 보냈다. 둘째 날에도 정신이 흐리고 고달파 움직일 수도 없었으나 각고의 뜻으로 굳게 참아냈다.

셋째와 넷째 날의 밤에도 피로하고 고달파 앉아 있을 수도 없어, 더러는 머리를 벽에 짚고 부딪히며 겨우 참았다. 일곱째 밤을 지냈더니 탁 트이듯 정신이 밝게 깨쳐 상쾌함을 자각할 수 있었다.

初夜坐到四更眼自合 忍而至曙。
 第二夜昏倦不省事 刻意堅忍。

1)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三夜四夜倦困不能植坐 頭或撞於壁楣 猶忍過。

第七夜 脫然朗悟 精神自覺醒爽。

장로가 기뻐하며 이르기를,

“그대에게는 정말로 큰 인내력이 있으니 무슨 일인들 이룰 수 없겠나.”

하고는, 이어서 두 가지의 경전(經傳)을 꺼내 주며 이르기를,

“위백양(魏伯陽)¹⁾의 <참동계(參同契)>라는 책이니 수련(修煉)하는 데 가장 좋은 비결이며, 선가(仙家)에서 가장 높은 교리를 밝힌 책이다. <황정경(黃庭經)>²⁾의 내옥경경(內玉景經)은 기(氣)를 끌어내고 오장(五臟)을 단련하는데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역시 도가(道家)의 묘한 진리를 밝힌 것이다. 이 두 책을 만 번 정도 읽으면 저절로 깨달아 이해할 수 있으리니, 매일 열 번씩 읽도록 하게나.”

하였다.

長老喜曰。君有許大忍力 何事不可做乎。

因出二經授之曰。伯陽參同契 乃修煉至訣 仙家最上乘。

黃庭內外玉景經 乃導氣煉臟至要 亦道家妙諦。

讀之萬遍 自可悟解 令日各誦十遍。

또 이르기를,

“무릇 학문으로 높은 곳에 오르려 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그릇된 번뇌를 끊어 버리고, 편안히 앉아서 기력과 정신을 단련해야 하네. 또 삼보(三寶)³⁾를 단아야지 용호(龍虎)가 서로 싸우는 틈에서도 도술은 이루어지니, 그렇게 하는 것이 지름길 이네.

스스로 높은 지혜나 뛰어난 성품을 갖추지 않는다면 빨리 이루어질 수는 없네. 그대의 성품은 순박하고 강인하니, 높은 교리로는 가르쳐주기는 어렵네. 맨 먼저 곡식으로 식사하는 걸 끊어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낮은 곳에서 최상까지 도달하는 방법일세.

又曰。大凡學飛昇者 斷除念頭 安坐煉精氣神。

三寶令坎離龍虎交濟成丹, 是大捷徑。

而自非上智與宿稟 不可辟爲。君性朴固剛忍 難以上乘訓之。

姑先絕粒。爲下學上達計也。

1) 중국 후한 때의 철학자, 오행(五行)이 서로 통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를 저술함.

2) 도가의 경전 가운데 하나로 양생과 수련의 원리를 담고 있는데, <태상황정내경경(太上黃庭內景經)>과 <태상황정외경경(太上黃庭外景經)>의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음.

3) 귀, 입, 눈.

무릇 사람의 생명이란 오행(五行)¹⁾에서 정기(精氣)를 받았기 때문에, 오장(五臟)은 각각 오행이 주관하는 거라네. 위장(胃臟)은 토(土)의 기운을 받아, 사람이 마시거나 먹는 것은 모두 위장으로 들어가네.

비록 곡식으로 몸이 건강하게 되고, 병을 없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기가 토(土)에 끌려, 끝내는 찌꺼기가 되어 땅으로 돌아가는 법이네. 옛날에 곡식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그래서였네. 그대 역시 먼저 곡식 먹지 않는 것을 시험해 보게.” 하였다.

凡人之生 稟精於五行 故五臟各主五行。

脾受土氣 人之飲啖 皆歸於脾胃。

雖以穀精強健無疾 而氣引於土, 終至於魄歸乎地。

古之碎穀者 皆爲此也。君試先碎穀。

그리고는 곧 남궁두로 하여금 7일 동안 하루에 두 끼니만 먹도록 하였다. 또 7일 동안은 한 끼니는 밥, 한 끼니는 죽을 먹도록 하였다. 다시 7일 동안은 한 끼니의 죽을 없애고 밥만 한 끼니 먹도록 하였고, 다시 7일 동안은 밥 대신 죽만 한 끼니 먹도록 하였다.

28일이 지나자 밥과 죽을 모두 먹지 못하게 하고, 열쇠로 감실(龕室) 위의 자물쇠를 열어 칠(漆)을 한 그릇 두 개를 꺼냈다. 하나는 검은 콩가루가 든 것이고, 하나는 황정(黃精)²⁾과 복숭아씨 가루가 들어 있었다.

각각 한 숟가락씩 물에 타서 하루에 두 차례 먹으라 하였다.

卽令斗日再食。七日 又一飯一粥。七日減一粥 更七日以粥替飯。

過四七日撤飯粥 以匕開上龕鑰 取漆盒二個。

一黑豆末 一黃精屑桃。

各一匙 和水餌之 日再焉。

남궁두는 본래 먹는 양이 많아서 허기증을 참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몸이 수척해지고 피곤해지며 눈이 흐려져 물건을 분별할 수 없었지만 계속 참아냈다. 검은 콩가루를 복용한 지 21일째 되던 날, 갑자기 배 안이 채워진 듯하여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그 후에는 곧바로 측백나무 잎과 호마(胡麻)³⁾를 먹도록 해 주자, 온몸에 촌촌히 부스럼이 돌아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또 1백 일이 지나자 부스럼 딱지가 떨어지고 새살이 나와 완전히 이전처럼 되었다.

1) 우주 만물을 이루는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

2) 둥글레.

3) 참깨.

斗食腸素寬 飢之殆不可忍。身疲體倦 眼昏花不辨物 猶忍之。
服黑豆三七日 忽若充然不思食。
卽令餌柏葉胡麻數 遍身生瘡 疼不能忍。
又百日痂脫肉生方如常。

장로가 기뻐하며,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성품과 체질을 타고났네. 다만 욕심만 없애면 되겠군.”
하였다. 3년 동안 머무르며 두 책을 모두 만 번씩 읽으니, 가슴속이 씻은 듯이 시원해져 신과 통함을 느끼는 듯하였다.
장로는 수식관(數息觀)¹⁾을 가르쳐 주었고, 또 운기(運氣)²⁾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자, 기(氣)가 이미 움직이게 되었다.
마침내 자(子), 오(午), 묘(卯), 유(酉)³⁾로써 육자비결(六子祕訣)⁴⁾을 행하여 호흡의 도(道)를 이루자, 얼굴에 점점 살이 찌고 기운은 갈수록 상쾌해지며 온갖 상념이 모두 사라졌다.

長老喜曰。君眞利器也。但息慾念。
留三年讀二訣凡萬遍 胸次洒然 若有神會。
長老教以數息 既又教之運氣 氣已運矣。
遂以子午卯酉行六子祕訣 呼吸道成 顏漸腴氣益爽 萬念俱灰。

6년을 지나자 장로는,
“그대에게는 도사의 골격이 있어, 법으로는 마땅히 신선이 되어 승천할 만하네. 지금 여기에서 내려간다 해도 왕자교(王子喬)⁵⁾, 전갱(錢鏗)⁶⁾ 정도는 될 것이네.
욕망이 비록 일어나더라도 오직 그걸 참아야 하네. 무릇 욕망이란 비록 식욕과 색욕이 아니더라도, 일체의 망상은 진리를 찾는 일에 해로우니, 반드시 모든 유(有)⁷⁾를 없애고 고요한 마음으로 단련해야 하네.”
하였다.

居六年 長老曰。君有道骨 法當上昇。
下此則不失爲喬鏗矣。慾念雖動 地忍之。
凡念雖非食色 一切妄想 俱害於眞, 須空諸有 靜以煉之。

1) 호흡을 다듬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행 방법.
2) 이미 정해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하늘에서 정해 저절로 오는 운수.
3) 불교의 경전 달마세수경(達摩洗髓經)에 나오는 수행법.
4) 중국의 여섯 글자 발성에 따라 내부 장기의 움직임을 이용한 단전호흡법.
5) 중국 주나라의 선인(仙人)
6) 중국 상고 시대의 선인.
7) 불교의 십이연기(十二緣起)의 하나.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그런 후에 비어 있는 두 번째 집에다 남궁두를 앉게 했다. 오르고 내리며 구르고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가르쳐 주는 말마다 자상하고 친절하였다.

남궁두는 가르침에 따라 태연히 앉아 움직이지 않으며, 눈을 감고 내면으로 장로를 보았다.

그런 때에는 좁고 더움, 주림과 배부름을 건디어 낼 수 있었다.

因空第二屋 坐斗其其中。教以昇降顛倒之法 口訣諄至。

斗依所訓 兀然堅坐不動 閉眼內視長老。時寒燠飢飽以保持之。

하루는 윗잇몸에 있는 조그마한 오얏 같은 것에서 혀 위로 단물을 흐르게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장로에게 알렸다.

장로는 천천히 빨아 뱃속으로 삼키라 하고는 기뻐하며,

“이제 서주기(黍柱基)¹⁾가 세워졌으니 화후(火候)²⁾를 움직일 수 있네.”

하면서, 곧바로 벽에 삼재경(三才鏡)³⁾을 걸고, 좌우에 칠성검(七星劍)⁴⁾ 두 개를 꽂았다. 그리고 절름발이 걸음을 걸으며 주문을 외어, 마귀를 물리치고 도(道)를 이루게 해달라고 빌었다.

一日。覺自上齶如小李狀甘涎注舌上。告長老。

長老令徐嚥歸腹中 喜曰。黍柱基立 可運火候。

卽掛三才鏡于壁 植七星劍二口於左右。

禹步呪祝 冀以却魔成道。

단련한 지 거의 6개월 만에 단전(丹田)⁵⁾이 가득 채워지고, 배꼽 아래서 금빛이 나오고 있었다. 남궁두는 도(道)가 이루어짐을 기뻐하다가, 급히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솟아남을 억제할 수 없었다. 타녀(姤女)⁶⁾에 불이 붙어 이환(泥丸)⁷⁾이 타오르자 고향을 지르며 뛰어나왔다.

장로가 지팡이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슬프다,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는구나.”

하고는, 급히 남궁두를 편안히 앉게 하여 기(氣)를 내리게 하였다.

煉幾六朔 丹田充盈 若有金彩發於臍下。

斗喜其將成 欲速之心遽萌芽不能制。

1) 기장의 줄기.

2) 학문과 수양을 쌓는 일.

3) 하늘, 땅, 사람의 참된 모습을 비춘다는 도가(道家)의 거울.

4) 궁궐의 무관들이 패용하던 검

5) 배꼽 아래로 한 치 다섯 푼 되는 곳으로 여기에 힘을 주면 건강과 용기를 얻는다고 함.

6) 단약(丹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은(水銀).

7) 단전호흡에서 생각이 집중되는 양미간(兩眉間).

姪女離火 上燒泥丸 絕叫趨出。

長老以杖擊其頭曰。噫其不成也 亟令斗安坐降氣。

기는 비록 수그러졌으나 마음이 두근거려 온종일 안정되지 않았다.

장로가 탄식하기를,

“세상에서 드문 사람을 만났기에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업(業)¹⁾의 가로막음을 제거하지 못하여 끝내 엎질러지고 말았다. 이는 그대의 운명(運命)이라. 내 힘으로 어찌하리오.”

하고는, 이어 소다(蘇茶)²⁾를 마시게 하니, 7일 만에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에서 뜨거움이 오르지 않았다.

氣雖制伏 而心沖沖終日不定。

長老歎曰。曠世逢人 教非不盡 而業障未除 遂致顛敗。

君之命也。吾何力焉。

因以蘇茶飲之 至七日心方恬而氣不上炎。

장로가 이르기를,

“그대는 비록 신태(神胎)³⁾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역시 지상(地上)의 신선(神仙)은 될 수 있을 것이네. 조금만 더 수양한다면 8백 세의 수명을 누릴 수 있을 거네. 그대의 운명(運命)에는 당연히 아들을 두게 되어 있으나, 정기(精氣)가 나오는 길이 이미 막혔으니, 약을 먹어 트이게 하게나.”

하면서, 붉은 오동 열매와 같은 환약(丸藥) 두 알을 꺼내 주며 그걸 삼키게 하였다.

長老曰。君雖不成神胎 亦可爲地上仙。

少加樽養 則八百年之壽可享矣。

君命當有子 洩精之竅已塞 可服藥以通之。

出二粒赤桐子丸嚥之。

남궁두가 청(請)하기를,

“우둔한 사람이 가르침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나 자신의 운명이 기구하였기 때문이니, 무엇을 한스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⁴⁾가 스승님을 모신 지가 이제 7년입니다만, 아직도 스승님이 오신 곳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다른 날에라도 사모하는 정성이 위안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떠할는

1) 전생의 소행으로 말미암아 현세에 받는 응보(應報).

2) 차조기의 어린잎을 달여서 만드는 몸을 회복시키는 차.

3) 호흡법 등으로 장수를 누리려는 도교 수련법의 최고 경지.

4) 남궁두 자신.

지요?”

했다.

斗請曰。庸慙不任教。自我命薄 何恨。

弟子侍師七歲于茲 尙不知師之出處。

幸賜其詳 慰異日嚮往之誠若何。

장로(長老)가 웃으면서,

“다른 사람이 묻는다면 결코 말할 수 없지만, 그대는 능히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므로 자세히 말해 주겠네.

나는 상락(上洛)¹⁾의 큰 성씨(姓氏)의 후손으로, 태사(太師)²⁾ 권행(權幸)의 증손자였네. 송(宋)나라 희령(熙寧) 2년³⁾에 태어났지. 열네 살에 풍라(風癩)⁴⁾에 걸려 부모가 거두어 주지를 앓고 숲속에 버렸네. 밤에 호랑이가 안아다가 돌굴에 놓아 주고는, 눈에 불을 켜고 두 마리의 새끼에게 젖을 먹이면서도, 그 곁에 있는 나를 끝내 해치려 하지 않더군. 아픔이 한창 극도에 달하여, 차라리 호랑이의 어금니에 물려 속히 죽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더군.

長老笑曰。他人問之 固不敢言 君能忍者 故告之詳。

我卽上洛大姓子大師幸之曾孫子也。生於宋熙寧二年。

十四有風癩 父母不收 棄之林中。

夜有虎攬而置諸石室 耽耽乳其二子其旁 終不害意。

痛方極 恨不速斃於其牙齒。

초라(草羅)라는 풀이 벼랑의 구멍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잎이 넓고 뿌리가 크더군. 시험 삼아 찢어서 먹었더니 배 속이 조금 채워졌네. 몇 개월 동안 그걸 먹자, 부스럼이 줄어지고 점점 혼자서 일어설 수 있었네. 그리하여 많이 캐다가 끼니마다 그걸 먹었었네. 산 중턱의 것을 거의 전부를 캐 먹으며, 몇백 일을 지내자 부스럼이 다 벗겨지고, 온몸에 푸른 털이 돋아나기에, 기뻐하며 실컷 먹었지. 또 1백 일이 지나자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 산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더군.

이미 나병은 나왔으나 옛날의 마을을 분별하지 못하여, 길에 나와서도 갈 곳을 몰라 서성거리고 있었네.

有草羅生於崖竅 葉敷根大。試洗而食之 腹稍果。

食數月瘡漸損 稍自起立。遂多掘而頓食之。

1) 상주(尙州)의 옛 이름

2) 왕세자의 교육을 맡던 종일품 벼슬.

3) 고려 문종 23년(1069), 희령은 송나라 신종(神宗)의 연호.

4) 나병.

殆盡半山 幾百日瘡悉脫 遍生綠毛 喜而強食之。
又百日 身自舉倏昇於峯巔。
既已愈其疾 不辨古邑來路 方棲邊靡所之。

뜻밖에도 스님 한 사람이 산봉우리 아래로 지나가고 있어, 그곳으로 찾아가 길을 막으며 물었지,
'이곳은 어떤 산입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답하기를,
'이건 태백산(太白山)이요, 지역은 진주부(眞珠府)에 속합니다.'
하더군. 그래서 근방에 절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서쪽 봉우리에 절이 있으나 길이 끊어져 쉽게 올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더군.

忽有一僧過于峯下 賴身就其途遮問曰。此何山也。
僧曰。此乃太白山 而地係眞珠府也。
近有寺否曰 西峯有蘭若 路絕不易攀陟。

나는 곧 날아서 그 암자에 이르렀네. 선방(禪房)¹⁾은 낮인데도 문이 닫히고, 사람이라곤 없더군. 손으로 결채의 문을 열고 들어가, 가운데에 있는 집으로 가 보았지. 늙고 병든 스님 한 사람이 굵은 베옷을 두르고 탁자에 기대어 숨 가빠 하고 있더군.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눈을 뜨고 나를 보면서 말했지.
'간밤의 꿈에 한 노인이 말하기를, 우리 스승님 비결서(祕訣書)²⁾를 전할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더니, 그대의 얼굴을 보니 진정 그 사람이군.'
하면서, 일어나 보자기를 풀어 한 뭉치의 책을 꺼내 주며,
'이것을 만 번 읽으면 그 의미를 저절로 알 것이니, 노력하고 게으름 피우지 말게 나.' 하였네.

吾卽飛至其庵。禪寮晝閉 闔爾無人。
手闢廊戶 行到中寮。有一老病僧擁布褐 隱几而喘。
幾死 擡眼見之曰。
夜夢老相言傳我師祕書者今當至。相君面。眞其人也。
起解裳出一函書 授之曰。
讀此萬周 其義自見 努力勿怠。

내가 그건 누가 전해 준 것이냐고 물었더니,

1) 참선하는 방.

2) 소중히 간직해 둔 책.

‘신라(新羅)의 의상대사(義湘大師)께서 중국에 들어가 정양진인(正陽真人)¹⁾을 만나 이 책을 받으셨고, 임종하시면서 나에게 부탁하시며, 2백 년 뒤에는 반드시 전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대가 대사의 유언에 맞는 사람이니 받아 힘쓰게 나. 나는 전해 줄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는 죽으려네.’

하면서 부좌(趺坐)²⁾하고 조용히 돌아가셨네. 나는 곧바로 그분을 다비(荼毗)³⁾하였고, 짙은 남색 사리(舍利)⁴⁾ 1백 알맹이를 얻어 내어, 탑(塔) 속에 매장하였네.

책 문치를 풀고 살펴보니 <황제음부경(黃帝陰符經)>, <금벽용호경(金碧龍虎經)>, <참동계(參同契)>, <황정내외경(黃庭內外經)>, <최공입약경(崔公入藥鏡)>, <태식심인(胎息心印)>, <통고정관(洞古定觀)>, <대통청정(大通清靜)>⁵⁾ 등의 경전(經傳)이었네.

吾問其熟傳 曰。

新羅義相大師入中原 逢正陽真人 授此書。

臨化囑我 二百年後 當有傳者。

君應其識 可受持勉力。吾得所傳 從此逝矣。

趺坐寂然化。吾卽荼毗之 得紺舍利百粒 藏之塔中。

解函視之 乃黃帝陰符 及金碧龍虎經 參同契 黃庭內外經 崔公入藥鏡 胎息心印 洞古定觀 大通清靜 等經。

그 암자에 들어가 홀로 지내면서 수련하는데, 마귀들이 모든 곳에서 와서 둘러쌌지. 하지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니 사라져 갔네. 그렇게 온갖 애를 쓰며 11년 만에야 신태(神胎)를 이룰 수 있었네. 법으로는 당연히 해탈해서 떠났겠지.

하지만 옥황상제께서는 이곳에 계속 머물러서 동국(東國)⁶⁾ 삼도(三道)의 모든 신(神)을 거느리라고 명령하셨네. 그래서 여기에 머문 지 5백여 년이었네. 기한이 차면 당연히 하늘로 오를 걸세.

就其庵獨居修煉 魔鬼萬方來撓。以不聞不見消之。

凡苦志十一年 乃成神胎。法當解去。

上帝命留此統東國三道諸神 故留此五百餘年。限滿則當上昇矣。

나는 그동안 수십 명을 만나 보았지. 더러는 기(氣)가 지나치게 예민하고, 더러는

1) 종리권(鍾離權). 중국 동한 때 전진도(全真道, 도교의 한 종파)를 처음 세운 이. 여동빈(呂洞賓)의 스승.
2) 가부좌(跏趺坐). 오른쪽 발을 우선 왼쪽 허벅지 위에 얹고 다음에 왼쪽 발을 오른쪽 위에 얹는 앉는 방법.
3) 화장하여 장례를 치름.
4) 부처나 성자를 화장한 뒤에 나오는 구슬 모양의 유골.
5) 모두 도교의 경전임.
6) 우리나라.

너무 둔하기도 하고, 더러는 참을성이 적었고, 더러는 인연이 열었으며, 더러는 욕망이 많아 모두 성공할 수가 없었네.

만약 도(道)를 이루는 사람이 있었다면 마땅히 내 임무를 맡기고 옥경(玉京)¹⁾으로 오를 것이네. 하지만 수백 년을 헛되이 보내고도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니, 이 건 나의 티끌 세상과의 인연이 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게야.”

하였다.

吾經歷數十人 或氣過銳 或太鈍 或少忍力 或緣淺 或多慾念 俱不能成。

若有成道者 吾當舉授吾任 上歸玉京。

而曠百年不得一人 此我塵緣未盡而然也。

남궁두는 장로와 함께 오랫동안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곤 했지만, 그가 숨기는 것이 있어 늘 이상하게 여겼다. 배꼽 아래 한 치 정도의 부분을 가리고 남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점이였다.

그 까닭을 물으며 그걸 보고 싶다고 했더니, 장로는 웃으면서,

“그걸 왜 쉽게 보여 주라. 보여 주면 그대는 깜짝 놀라 까무러칠 것인데.”

하였다.

斗興長老久同寢 常怪其祕。臍下寸地 不許人見。

問其故欲觀之 長老笑曰。

何容易耶。見則恐驚君耳。

남궁두가,

“왜 놀라겠습니까, 한 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자, 장로가 싸맨 것을 풀어놓으니, 반짝이는 금빛 백여 줄기가 천장까지 솟구쳤다. 바로 볼 수도 없어 의자 밑으로 숨으니, 장로는 다시 그걸 싸매서 이전처럼 하였다.

斗曰。奚驚爲 願一見。

長老解下包 金光百道 射於屋梁。不能定視 蒲伏於榻 長老還包之如故。

남궁두가 또,

“스승님은 이미 모든 신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였는데, 왜 한 사람도 찾아와 받드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니, 장로는,

“나는 정신을 날려서 그들의 조화를 맡곤 했었네.”

1) 옥황상제가 산다는 하늘의 서울.

하였다. 또 여러 귀신 구경하기를 청했더니,
“내년 정월 보름날을 기다려야 하네.”
하였다.

斗又曰。師既治諸神 何無一個來修觀者。
長老曰。吾飛神而受其朝矣。
又請觀諸神 曰。可待明年上元也。

그날이 되자 장로는 감실 속에서 옷 상자를 꺼냈다. 여덟 가지 채색의 방산건(方山巾)¹⁾을 쓰고, 일곱 개의 별과 해와 달을 수놓은 도포(道袍)를 입고, 둥근 청옥(靑玉)에 사자를 그린 띠를 두르고, 다섯 가지 꽃으로 무늬가 된 신을 신고, 손에는 여덟 모가 진 옥(玉)으로 만든 여의주(如意珠)를 붙잡고, 섬돌 위에 부좌하였다.
남궁두는 서쪽으로 향해서 모셨고, 동자는 모퉁이에 서 있었다.

至期 長老出龕中衣箱。
戴八霞方山巾 服七星日月繡袍 係圓靑玉 束獅帶 穿五花文履 手持八角玉如意 跏
坐砌臺上。
斗西向侍 童子偶立。

갑자기 대(臺) 위의 두 잣나무에 각각 울긋불긋한 꽃등불이 걸리기 시작했다. 조금 더 지나자, 산골 가득한 수천수만의 나무에 모두 꽃등불이 걸려 붉은 불꽃이 온 공간을 가득 채워 대낮 같았다.

그러자 기이하고 괴상한 모습의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더러는 곰이나 호랑이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자나 코끼리 같았다. 어떤 것은 표범인데 다리가 둘이었고, 어떤 것은 규룡(虯龍)²⁾의 모습이었는데, 날개가 있었고, 어떤 것은 용이면서 뿔이 없었다. 어떤 것은 용의 몸에 말의 머리가 달렸고, 어떤 것은 뿔이 세 개인데 사람처럼 서서 빨리 달렸으며, 어떤 것은 사람 얼굴처럼 생겼는데 눈동자가 세 개나 달려 있었다. 이런 것들이 수백 마리나 되었다.

忽於臺上雙檣 各掛彩花燈 俄而滿洞千萬樹。
俱各掛花燈 紅焰漲空如白晝。
有奇形怪狀之獸 或熊虎或獅象。或豹而雙脚 或虯形而翼 或龍而無角。
或龍身馬頭 或三角而人立決驟 或人面三眸者 以百數。

1) 중국에서 악사나 방사(方士, 술법을 닦는 사람)들이 쓰던 모자.

2) 몸빛이 붉고 뿔이 돋았다는 용의 새끼.

또 코끼리, 노루, 사슴, 돼지의 모습인데, 금빛 눈에 하얀 이빨, 붉은 털 하얀 발굽에 뛰고 활쫓고 하는 것들이 1천여 마리 정도나 되었다. 이들은 모두 열을 지어 장로를 좌우에 모시고 서 있었다.

또 금동(金童)과 옥녀(玉女)¹⁾가 깃발을 들고 수백 명이 서 있었다. 깃발과 창검을 든 군대도 1천여 명으로 뱅 둘러 서 있었다.

又有象獐鹿麋形者 金目雪牙 赭毳霜蹄。夭矯擎攬以千計。

俱羅侍於左右。

又有金童玉女捧幢節數百人。介戟具三伏者千餘人。

대(臺) 위에는 온갖 향기가 가득하고, 황패(璜佩)²⁾ 부딪치는 소리가 쟁쟁거렸다. 바로 이어서 푸른 장삼(長衫)을 입고, 상아 홀(笏)³⁾을 들고, 수창(水蒼)⁴⁾을 차고, 고깔을 쓴 두 사람이 섬돌 아래서 국궁(鞠躬)⁵⁾하고는 소리 높여 아뢰기를,

“동방(東方)의 극호림(極好林), 광하(廣霞), 홍영산(紅映山) 등 삼대신군(三大神君)이 뵙습니다.”

하였다. 이들 삼대신(三大神)은 모두 빨간 금관을 쓰고, 붉은 도포에 옥띠를 띠고, 홀을 단정히 잡고, 구름이 그려진 신을 신고, 칼과 노리개를 찻으며, 키가 현철했다. 얼굴은 희고 맑고 길었으며 눈썹과 눈이 밝고 수려하였다.

장로가 일어서서 공수(拱手)⁶⁾하니 삼대신은 함께 두 번 읊하고는 물러갔다.

環立臺上 衆香馥郁 璜佩丁東。

續有青衫象 簡佩水蒼戴弁者二人 鞠躬階下 唱曰。

東方極好林 廣霞 紅映山 三大神君見。

有三神俱頂紫金梁冠 紫袍玉帶 端笏雲履 佩劍珩者 頎而哲長。眉目皆朗秀。

長老起立拱手 三神皆再揖而退。

또 아뢰기를,

“봉호(蓬壺), 방장(方丈), 도교(圖嶠), 조주(祖洲), 영해(瀛海) 등 오주(五洲)의 진관(眞官)⁷⁾이 뵙습니다.”

하였다. 다섯 신(神)은 각각 지방색을 보이는 도포를 입었고, 관(冠)이나 노리개는 삼대신과 같았는데, 모두 현걸차고 수려했다.

1) 도교에서 신선의 심부름을 하는 사내아이와 계집아이.

2) 왕, 왕비의 예복이나 벼슬아치의 조복(朝服, 관원이 조정에 나아가 하례할 때에 입던 예복)의 좌우에 늘어 차던 옥.

3) 벼슬아치가 임금을 만날 때 조복(朝服)에 갖추어 손에 쥐던 패.

4) 대부(大夫, 정일품에서 종사품까지의 벼슬) 이상의 관원이 차는 옥.

5)윗사람이나 위패 앞에서 존경의 뜻으로 몸을 굽힘.

6)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두 손을 맞잡아 공경의 뜻을 나타냄. 또는 그런 예.

7) 신선들.

장로가 일어서니 다섯 신이 모두 두 번 절하고 물러갔다.

又唱曰。

蓬壺，方丈，圖嶠，祖洲，瀛海等 五洲眞官見。

有五神各披方色袍 冠佩如前 而俱頎秀。

長老起立 五神皆再拜而退。

또 아뢰기를,

“동해, 남해, 서해의 장리(長離), 광야(廣野), 옥초(沃焦), 현룡(玄隴), 지폐(地肺), 충진(攄眞), 여계(女几), 동화(東華), 선원(仙源), 임소(琳宵) 등 십도(十島)의 여선관(女仙官)¹⁾들이 뵙습니다.”

하자, 선녀 10인이 모두 꽃으로 수놓은 금말건(金襴巾)²⁾을 쓰고, 붉은 구슬로 된 보요(步搖)³⁾를 꽂았는데, 구슬과 비취옥이 영롱하게 얼굴에 반사하여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었다. 금봉(金鳳)의 무늬를 놓은 흰 저고리에 파란 비단으로 만든 긴 치마를 무릎 아래까지 드리웠다. 태을영부(太乙靈符)⁴⁾를 차서 번쩍번쩍 번갯불이 났고, 푸르고 붉은 모가 난 낮은 신을 신었다.

흰칠하고 허리가 길었는데, 남자들이 하던 절을 올리니, 장로는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절을 받자 여관(女官)들이 물러갔다.

又唱曰。

東南西海 長離 廣野 沃焦 玄隴 地肺 攄眞 女几 東華 仙源 琳宵等 十島女官 見。

有仙女十人 俱戴花絨金襴巾 插赤珠步搖 珠翠玲瓏映其面 不可定視。

服素練金鳳紋衫 施翠羅襪膝長裙。佩太乙靈符 旣有電光 穿綠花方底履。

頎長而男子拜 長老不起 坐受之 女官退。

또 아뢰기를,

“천인(天印), 자개(紫蓋), 금마(金馬), 단릉(丹陵), 천량(天梁), 남루(南壘), 목주(穆洲) 등 칠도(七道)의 사명신장(司命神將)이 뵙습니다.”

하니, 붉은 말액(抹額)⁵⁾에 깃을 꽂고, 무인(武人)들이 입는 고의(袴衣)⁶⁾와 꽃으로 수놓은 앞가림 옷을 입고, 팔에는 활집과 화살통을 비스듬히 걸었고, 손에는 붉은 창을 붙잡고 있었다. 모두 사자의 형태에 범의 모습으로 붉은 머리털을 세우고 금빛 눈동자에 용의 수염이 달렸었다.

1) 선녀.

2) 버선 모양의 금빛 모자.

3) 떨잠.

4) '태을경(太乙經)'이 적혀 있는 부적.

5) 중국 관리들이 쓰던 둘레가 넓고 운두가 낮았던 모자.

6) 훌바지.

음만 하고 절은 하지 않고 물러갔다.

又唱曰。

天印 紫蓋 金馬 丹陵 天梁 南壘 穆洲等 七道司命神將見。

有紅抹額插羽 戎袴褶 繡花掩心 金搭 肘佩矢房弧箠 手朱爰而俱。

獅形虎姿 植赤髮金目虬髯者。 揖不拜退。

또 아뢰기를,

“단산(丹山), 현림(玄林), 창구(蒼丘), 소천(素泉), 자야(赭野) 등 다섯 신의 거느림을 받는 산림(山林), 수택(藪澤), 영독(嶺瀆), 성황(城隍) 등의 모든 귀백(鬼伯), 귀모(鬼母)는 함께 뵈옵니다.”

하였다. 5대 신장(神將)들의 모습은 앞의 7도 신장들의 모습과 같았고, 각각 한 무리가 백여 명이나 되는 영관(靈官)¹⁾을 거느리고 있었다.

어떤 이는 키가 작고 누추했으며, 어떤 이는 키가 컸으며, 어떤 이는 말쑥했고, 어떤 이는 여섯 개의 팔과 네 개의 눈이 있었다. 여자 중에는 더러 늙고 추했고, 더러는 곱고 젊었는데, 모두 지방색을 맞는 옷을 입었다.

열을 지어 서서 네 번 절하고, 물러 나와 다섯 대열이 되었다.

又唱曰。

丹山 玄林 蒼丘 素泉 赭野等五神所繞 山林 藪澤 嶺瀆 城隍 諸鬼伯鬼母俱見。

五大神將 如七道神形者 各領一隊百餘靈官。

或短醜 或長大 或潔脩而雅 或六臂四目者。

女或老醜 或妍少者 被服俱隨方色。

列立四拜 退爲五隊。

장로가 동자에게 명하여, 붉은 깃발을 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향해 간 뒤에 남쪽으로 돌아 서쪽에 이르러, 가운데 대열 앞에 서게 하니,

“여러 신령들이 모두 모였으나 오직 위주(魏州)의 조부인(趙夫人)만 오지 않았습니다.”

고 아뢰었다. 소천신(素泉神)이 나와서 꿇어앉으며,

“부인은 귀양살이 가서 이제는 사람으로 강등되었고, 그를 대신할 사람이 오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長老命小童 持小絳幡 從北方指東環南抵西 立于中隊之前。

告曰。諸靈俱會 而魏州趙夫人未至矣。

1) 도교에서의 수호신.

素泉神出跪曰。他以謫 今降爲人 其代不來矣。

장로는 광하(廣霞) 등 세 진인(眞人)¹⁾을 불러서 앞에 세워 놓고 이르기를,
“경들은 세 방면을 나누어 다스리면서, 상제님의 어진 덕을 실천하였기에, 백성들이 경들의 은택(恩澤)을 입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요즈음 액운이 다가오고 있어 만백성이 재앙에 맞고 있는데, 이들을 구출할 방책을 마련하였는가?”
하고 물었다.

長老招廣霞三真人至前。謂曰。

卿輩分理三方 體上帝好生之德 黎庶受卿澤久矣。

今者厄會將至 萬姓當罹其殃 思所以拯之榮耶。

세 사람은 모두 탄식을 거듭하며,
“정말로 타이르신 바와 같습니다. 어제 봉래산(蓬萊山)의 치수대감(治水大監)이 자하원군(紫霞元君)이 있으신 곳에서 와서 홍영산(紅映山)에 들러 말하기를,
‘여러 진인들이 구광전(九光殿) 위에 있으면서 상제님을 모시는데, 삼도(三島)의 제군(帝君)들이 말하기를, 「염부제(閻浮提)²⁾에 살고 있는 삼한(三韓)³⁾의 백성들이 지나치게 교사스럽고 감사하여 속임수를 잘 쓰고, 복(福)을 아끼지 않으며,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효(不孝), 불충(不忠)하고, 귀신을 모독하였다. 그래서 구림동(句林洞)에 사는 이면(狸面)의 대마(大魔)⁴⁾를 빌려다가, 적토(赤土)⁵⁾의 군대를 모두 모아 가서 소탕하려 한다. 그렇게 전쟁을 7년간 하게 되면, 다행히 나라는 망하지 않을지라도, 삼한의 백성들은 열에 대여섯이 살육될 것이니, 이로써 경계하려 한다.」 라고 했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 신하들도 역시 모두 두려워서 마음이 떨리더이다. 그러나 이 모두가 큰 운수의 소관인데 어찌 감히 힘으로 해결되겠습니까?”
하였다.

三人者俱唏咨。誠如所諭。

昨者蓬萊治水大監 自紫霞元君所來 過紅映山言。

衆眞在九光殿上侍上帝 有三島帝君道。

閻浮提三韓之民 機巧姦騙 誑惑暴殄 不惜福不畏天 不孝不忠 嫚神瀆鬼。

故借句林洞狸面大魔 拳赤土之兵往勦之。

1) 도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2) 인간세계.
3) 우리나라.
4) 이리 얼굴의 마귀.
5) 중국 남쪽에 있던 나라.

連兵七年 國幸不亡 三方之民 十集其五六以警之。
臣等聞之 亦皆心怵。
而大運所關 何敢容力乎。

장로도 역시 탄식하기를 그만두지 못했다.
잠깐 사이에 가운데 대열에서 대포를 쏘는 큰 소리가 나자, 네 대열이 모두 호응하여 북과 쇠를 울려서 도왔다. 그러자 나무 위의 등불이 하나하나 땅에 떨어졌고, 아득히 깊은 골짜기에 많은 구름이 내리깔렸다.
장로는 방으로 들어와 관(冠)과 옷을 벗고 등불을 밝히고 방 가운데 앉았다. 남궁두는 깜짝 놀라서 오랫동안 정신을 잃고 있었다.

長老亦嗟吁不已。
俄自中隊發炮一響 四隊皆應 擣鼓伐金以助之。
樹上燈一一落地 窅然幽谷 太雲平鋪。
長老入房 櫟其冠服 明燈坐室中。
斗愕眙自失者久之。

다음날 남궁두를 불러들여 이르기를,
“그대는 이미 인연이 엮어서 여기에 오래 남아 있기에는 합당치 못하니, 하산(下山)하여 머리를 기르고 황정(黃精)을 먹으며 북두칠성에 절하도록 하게나.
음탕한 사람이나 도둑도 죽이지 말고, 매운 채소, 소, 개고기 등을 먹지 말며, 다른 이들을 해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땅 위의 신선이네. 행하고 수양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면 또한 신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네.

翌日 招斗謂曰。
你既緣薄 不合久于此 其下山長髮餌黃精 拜北斗。
不殺姪盜 不茹葷狗牛肉 不陰害人 則此地上仙。
行脩之不息 亦可上昇矣。

<황정경(黃庭經)>과 <참동계(參同契)>는 도가(道家)의 높은 교리이니, 외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게. <도인경(度人經)>은 노자(老子)의 도(道)를 전하는 글이고, <옥추경(玉樞經)>은 바로 뇌부(雷府)¹⁾의 여러 신들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글이니, 항상 지니고 다니면 귀신들이 두려워하고 공경할 것이네.

黃庭 參同 道家上乘 誦持不懈。
而度人經 乃老君傳道之書。玉樞經 乃雷府諸神所尊佩之則 鬼畏神欽。

1) 천둥을 관장하는 신선 세계의 한 부서.

이 밖에 마음을 닦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을 가장 높이 두는 것이네. 평범한 사람들이 선과 악을 한 번만 생각하여도, 귀신들은 좌우에 벌려 있어 모두를 먼저 알아내는 법이네.

상제님께서 강림(降臨)하심이 무척 가까우니, 하나의 일을 하면 곧바로 그걸 두궁(斗宮)에 적어 두게. 억제하고 응답해 주는 효과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더 빠를 것이네.

此外修心之要 唯不欺爲上。

凡人一念之善惡 鬼神布列於左右 皆先知之。

上帝降臨孔邇 作一事輒錄之於斗宮。報應之效 捷於影響。

이치에 어두운 사람들은 이를 업신여기고, 짝 막힌 하늘이니 두려울 게 없다고 하지.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창창한 하늘 위에서 참다운 주재자(主宰者)가 자루를 조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대는 참아내는 마음이 강하긴 하지만, 아직 욕망이 제거되지 않았네. 혹시라도 삼가지 않아 한 차례라도 그릇된 곳에 떨어지게 된다면, 끝없이 오랜 괴로움을 당할 걸세. 어찌 삼감이 없어서야 하겠나.”

하였다.

昧者褻之 以爲茫昧不足畏。彼焉知蒼蒼上之 有眞宰者操其柄耶。

你忍心雖剛 而慾念不除。

倘或不慎 則一墜異趣 曠劫受苦。可無懼哉。

남궁두는 가르침에 따라 눈물을 흘리며 하직하여 하산(下山)하였다. 돌아보니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는 온데간데없어져 버렸다.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임피에 이르고 보니, 옛날의 집이라고는 터도 남지 않았고 전장(田莊)¹⁾은 모두 두세 차례씩 주인이 바뀌었다. 또 서울로 가 보아도 옛날의 집은 터만 남아 주춧돌만이 묵은 풀 속에 종횡으로 놓여 있었다. 눈물을 삼키며 돌아오고 말았다.

斗涕泣而受其誨 卽告辭下山回視。則無復人居焉。

展轉至臨陂 則舊廬無遺址 田畝皆再四易主。

又屆洛下 則故宅只有基 柱礎縱橫於宿莽中。忍淚而歸。

늘 생각하던 착실한 늙은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은 해남(海南)에 살며 충분한 밭

1)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논밭.

과 집이 있다기에 찾아가 몸을 의탁하였다.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하더니 얼마 후에 자기 주인임을 알아차리고는 서로 붙잡고 통곡하였다.

중은 자기가 살던 곳을 비워 주며 남궁두가 거처하도록 하였다. 남궁두는 상민(常民)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딸 하나씩을 낳았다.

常念有老實奴在海南 富有田宅 往投之而初不識焉。

久乃認爲其主 相持號慟。

空其居而處之。爲娶民家女 生子女各一。

선생¹⁾은 비록 다시 가업을 세웠으나, 스승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해남에서 떠나 용담(龍潭) 근처에서 은거하며, 깊은 산 골짜기를 골라서 살았으니, 치상산(雉裳山)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다시 선사(仙師)²⁾ 만나기를 바라던 계획이었으리라.

수십 년 동안 황정(黃精)과 솔잎을 채취하여 식사로 했는데, 몸이 날이 갈수록 더욱 건강해져 수염도 희지 않고, 걸음걸이도 나는 듯하였다.

先生雖更立家業 佩服師訓 終始不少懈。

去隱于龍潭地 擇深谷以居 爲近雉裳。

冀再遇仙師計。

而數十年 採黃精松葉食之 身日益強 鬚髮不白 步履如飛。

만력(萬曆) 무신년(戊申年)³⁾ 가을, 허균(許筠)이 공주(公州)에서 파직을 당하고 부안(扶安)에서 살았다. 선생이 고부(古阜)로부터 도보로 나의 여관방을 찾아 주셨다. 그리하여 네 가지 경전의 오묘한 뜻을 나⁴⁾에게 전해 주시고, 또 그분이 선사를 만났던 전말을 상세하게 위와 같이 말해 주었다.

萬曆戊申秋。筠罷公州 家扶安。

先生自古阜步訪於旅邸。

因以四經奧旨授之 且以遇師顛末詳言之如右。

선생의 나이는 그해에 83세였으나, 얼굴은 마치 46~47세 된 사람과 같았다. 시력이나 청력이 조금도 쇠약하지 않았고, 난새와 같은 눈동자나 검은 머리털이 의젓하여 여윈 학과 같았다. 어떤 때는 며칠을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으며 <참동계(參同契)>나 <황정경(黃庭經)>을 쉬지 않고 외곤 하였다.

1) 남궁두.

2) 장로.

3) 무신년(선조 41년(1608), 만력은 명 신종(明神宗)의 연호.

4) 허균 자신,

先生今年八十三 而容若四十六七歲人。
 視聽精力不少衰 鸞瞳綠髮 脩然如瘦鶴。
 或數日絕食不寐 誦參同 黃庭不綴。

문득 이르기를,

“몰래 해로운 일을 하지 말며, 귀신이 없다고 말하지 말게. 착한 일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욕심을 끊고 마음을 단련한다면 상선(上仙)¹⁾의 극치를 세울 수 있으며, 난새와 학이 며칠 사이에 내려와 맞아줄 것이네.”
 하였다.

輒曰。毋陰行險 毋曰無鬼神。
 行善積德 絕慾煉念 則上仙可立致 鸞鶴不日下迎矣。

나는 선생의 음식, 거처가 보통 사람과 같음을 보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선생이 이르기를,

“내가 처음에는 하늘에 오르리라 여겼는데, 빨리 이루고 싶어하다가 오히려 이루지를 못하고 말았네. 우리 스승님께서 이미 지상의 신선은 되었으니, 부지런히 수련하면 8백 세의 나이는 기약할 수 있다고 허락하셨네.

요즘 산중(山中)이 너무 한가하고 적막하여 속세로 내려왔으나, 아는 사람은 한 사람 없네. 또 가는 곳마다 젊은이들이 나의 늙고 누추함을 멸시하여, 인간의 재미라고는 전혀 없네.

不佞見先生飲啖食息如平人 怪之。
 先生曰。吾初擬飛昇 而欲速不果成。
 吾師既許以地上仙 勤脩則八百歲可期矣。
 近日山中頗苦閑寂 下就人寰 則無一個親知。
 到處年少輩輕其老醜 了無人間興味。

사람이 오래도록 보고 싶어하는 것이란 본래 즐거운 일인데, 쓸쓸하고 즐거움이 없으니 내가 왜 오래 살려고 하겠는가?

이 때문에 속세의 음식을 금하지 않고, 아들을 안고 손자를 재롱부리게 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하늘의 운명에 나를 맡겼다가 깨끗이 돌아가, 하늘이 주신 바에 순종하려네. 그대²⁾는 신선의 채주와 도가(道家)의 풍채가 있으니, 힘써 행하고 쉬지 않는다면, 진선(眞仙)이 되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네.

1) 높은 경지의 신선.

2) 허균.

人之欲久視者 原爲樂事 而悄然無樂 吾何用久爲。
以是不禁煙火 抱子弄孫以度餘年 乘化歸盡。以順天所賦也。
君有仙才道骨 力行不替 眞仙去君何遠哉。

우리 스승께서 일찍이 나에게 인내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참아내지를 못하여 이 지경이 되었네. 인(忍)이라는 글자 하나는 선가(仙家)의 오묘한 비결이니 그대 또한 삼가 지니고 놓치지 말게나.”

하였다. 얼마 동안 머무시다가 붙잡는 손을 뿌리치고 떠나갔으니, 사람들은 그가 용담(龍潭)으로 다시 갔다고들 하였다.

吾師嘗許我以忍 不能忍而至是。
忍之一字 仙家妙訣 君亦慎持勿墜也。
留數旬 拂衣辭去 人言其還向龍潭云。

허균(許筠)은 논한다.

전해오는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는 숭상했어도 도교는 숭상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다. 신라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몇천 년이 지났으나, 득도(得道)하여 신선이 되어 간 사람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전해오는 말들이 과연 증거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보았던 남궁 선생(南宮先生)으로 말한다면 이상할 수밖에 없다.

許子曰。傳言東人尙佛不尙道。
自羅逮鮮數千載 未聞有一人得道仙去者。
其果徵哉 然以余所覩南宮先生言之 可異焉。

선생이 스승으로 여겼던 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상(相) 보는 사람에게 알아냈다는 것도 결코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은 못 된다. 말했던 것들도 역시 모두 그렇지 않은 않으리라. 요컨대 그림자나 메아리 같은 실체 없는 소리이리라.

다만 선생의 나이와 용모로 본다면 참으로 득도(得道)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 것인지. 어찌하여 80의 나이에든 것처럼 건강했으랴. 이젠 또 도교 숭상하는 일이 실제로 없었다고 결정을 내릴 수도 없으리라.

아아, 그것이야말로 기이하다.

先生所師者果何人 而得於相師者 未必的然可信。
所悅亦未必盡然。要之影響之間也。
但以先生年貌看之 非眞能得道者耶。
那能八十而若是康健耶。此又不可決以爲實無是事也。

噫。其奇哉。

우리나라가 궁벽한 바다 밖 멀리에 있어 뛰어난 은사(隱士)로 선문자(羨門子)나 안기생(安期生)¹⁾과 같은 분들은 드물었다. 그렇지만 암석(巖石)의 사이에 그러한 이인(異人)이 있어, 여러 천백 년 만에 남궁 선생으로 하여금 만날 수 있게 하였다. 그 누가 '좁은 지역이니 그러한 인물이 없다.'라고 말하랴.

我國僻在海外 之遐氣之士如羨門，安期。

而巖石間乃有此異人 累千百年 俾先生一得遇之。孰謂偏壤而無其人耶。

도(道)에 통달하면 신선이요, 도에 몽매하면 범인이다. 전해진다는 말이 이식(耳食)²⁾과 무엇이 다르리오. 선생으로 하여금 빨리 이루려던 욕망이 없게 하여, 끝내 단련하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만 했다면, 저들 선문자, 안기생과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맞서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으랴.

다만 그분³⁾이 찾아내지 못하여 다 이루어진 공(功)을 실패하고 말았구나. 오호, 애석하도다.

達道則仙 昧道則凡。傳所言者與耳食奚殊。

使先生毋望其速成 卒收爐鼎之效 則彼羨門安期。亦何難拍肩而等夷之。

唯其不忍 以敗垂成之功。嗚呼惜哉。

1) 중국의 선인(仙人)들.

2) 귀로 듣기만 하여 그 전체는 따지지 않고 옳다고 믿어버리는 것.

3) 남궁두.